

‘의료 개혁’ 하려다 ‘의료 박살’



한 용 수 의
돌직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 개혁이 의료 파탄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이다.

처음 정부의 의대 증원은 다수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휴학을 계속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며 반발하자 의료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는 부정 여론이 커졌다.

이미 의대 교육 파행은 되돌릴 수 없게 됐다. 대다수 의대 1학년 학생들의 휴학으로 사실상 의대 한 학년이 없어진 상태다. 본과 4학년도 대다수가 수업을 듣지 않아 당장 내년 의사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올해 9월 시행된 의사국가시험 실기에 예년의 10분의 1 수준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사국시를 추가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문제가 생긴다.

동맹 휴업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최근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없이 승인함으로써 의대 증원을 놓고 벌인 의정 갈등에서 의사 단체가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의대생 휴학 승인은 집단 유급 사태를 피하기 위한 교육지책이었으나, 의대생이 돌아와도, 돌아오지 않아도 문제다. 올해 휴업했던 의대 1학년생들이 내년 3월 복귀하면, 내년 신입생 4500명과 합친 최대 7500명이 1학년 수업을 함께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들을 수용할 강의실과 기자재, 교수 부족 등으로 의대 교육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 이들은 의대 수업은 물론 전공의 수련까지 향후 10년간 함께하면서 교육도 수련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휴학 승인시 등록금을 돌려줘야 해 대학들은 재정난도 걱정해야 한다.

이에 의료계는 한 발 나아가 내년 의대 신입생 정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의학교육의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며, 이미 진행 중인 내년 신입생 정원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대 휴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대량 유급·제적 사태로 번져 의학교육 파행이 벌어진다.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관리 불능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 대학들은 1년 4학기제, 분반, 온라인 강의 확대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강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특히, 내년 의대 정원이 크게 증가한 지방 의대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당사자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의대 증원을 밀어부쳤기 때문이다. 아무런 협상력도 보여주지 못한 정책 당국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의대 증원 불가를 못 막아두고 정부와 대화를 거부한 의사단체 또한 공동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

정부와 의료계가 정원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 자의 반 타의반 휴학을 결정한 학생들은 물론,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이제라도 의대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한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지금의 의정 중심 협의체 구조로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반복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의대 증원의 근거인 미래 의사 수요와 공급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도출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세종=hys@metroseoul.co.kr

반도체특별법의 운명은



기지 수첩
박 태 홍
(정치경제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곧 반도체특별법 당론 법안을 낸다고 한다. 당론 추진 법안의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조항의 삽입 여부였으나,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직접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타협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국들의 대규모 직접보조금 지원과 세제 지원을 언급하며 재정 투입을 설득했다. 업계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강한 메모리 제조 분야에 경쟁국의 직접보조금이 투입되면 원가경쟁력에서 뒤져 장기적인 재투자가 힘들어지

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도체에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기 시작하면, 다른 산업들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또, 미국 같이 반도체 제조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나, 일정 수준 보조금을 받으면 기업의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하고,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 중국 내 시설 투자를 제한하는 등 재원 마련과 경제 안보 측면까지 전략적으로 고려했다.

한국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해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태에서, 집권여당이 ‘경제 안보’·‘미래 먹거리’ 등의 선언 뿐만 아니라 정교한 재원 마련 대책을 갖고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여가는 직접보조금 논의 이후, 반도체

특별법 관련 논의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상한 예외’ 논의로 흘러가는 듯 보인다. ‘주52시간 노동제’라는 경직된 근로환경이 자율 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할 연구인력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젠션’으로 불리는 ‘근로시간 상한 예외’도 경쟁력 확보라는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고소득자 엔지니어 등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약속과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정교한 정책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거센 추격과 경쟁국의 반도체 정책에 한국 기업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정국의회 법안 심사에서 여야가 각자 안을 놓고 보조금, 근로시간, 전력망 연결 문제 등이 담긴 ‘특별법’을 심사했다면 한다.

/pth7285@

오늘의 운세 11월 5일 (음 10월 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동분서주해야 오늘은 별 소득이 없다. 48년생 재산분배 최선의 해결책은 타협하는 것. 60년생 배우자 외 다른 이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72년생 지금까지의 실력이 사회적으로 발휘한다. 84년생 작은 성과이지만 항상 만족스럽다.



37년생 가슴이 답답하여 한잔 술이 달래준다. 49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61년생 오늘은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보도록. 73년생 옛날부터 평범한 것이 가장 원만하다고하는데. 85년생 익숙한 일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38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마라. 50년생 선대의 유덕에 힘입어 평생 낙낙하다. 62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은 평가. 74년생 둘다리로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묻자. 86년생 친구나 가까운 사람과 불화조심.



39년생 자식이나 나의 고생을 알아준다. 51년생 행운은 각자의 판단 나름. 63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못할 일이 없다. 75년생 세월이 있고 아직 젊으니 실패가 연속된다고 쓰러지지 말자. 87년생 4자가 누구에게나 흥한 숫자는 아니다.



40년생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52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뱀띠의 도움으로 거래가 성사. 64년생 남을 배려하면 나에게 득이 된다. 76년생 작은 승리를 거두면 자신감이 생겨야 실패. 88년생 연인의 초대로 마음이 즐거울 날.



41년생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53년생 투자는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 65년생 새로운 만남 특히 이성을 조심. 77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좌절안적이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89년생 가족과 떨어지면 이어서 재물실패가 따른다.



42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54년생 명성이 깔렸으니 하고 싶은 일을 맘대로 해보자. 66년생 굴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78년생 인생 전반기 승리는 후반기 실패의 씨앗이 되기도. 90년생 우연한 행운은 없을 듯.



43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는 소중히 보관. 55년생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67년생 진인사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79년생 세월의 운로는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을 것. 91년생 마음을 표현하며 조금은 베풀자.



44년생 호랑이띠 양띠와의 거래가 순조롭다. 56년생 한발 물러서 보면 길이 보이게 되니 여유를 가져라. 68년생 감촉부터 마시다가는 낭패를 본다. 80년생 엄격한 훈육은 지성인에게 통하는 것일 듯. 92년생 서리가 내리면 얼음이 얼 것을 준비.



45년생 분위기를 바꿔 보는 것도. 57년생 자식을 과잉보호하면 자녀의 체제가 나빠질 수도. 69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81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산다. 93년생 아프다 하지 말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다.



46년생 하늘의 뜻은 항상 공평하다. 58년생 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니 과감한 결단이 필요. 70년생 재운이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겠다. 82년생 장자가 말하길 이빨이 있으면 뱀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94년생 오후 운전 주의.



47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즐거운 마음으로. 59년생 정중지와(井中之蛙)나 우물안 개구리나 마찬가지. 71년생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 83년생 멀리서 찾아온 친구가 귀인. 95년생 가족끼리 미안함을 갖지 말도록.

김상회의四季

숫자와 길흉

큰 시험이든 일반 학교 시험이든 시험 때마다 나름의 징크스를 겪는 경우들이 있다. 시험일 당일의 컨디션이 중요하지만 수험생의 일진을 포함한 운기의 흐름이 시험결과에 영향을 준다 할 수 있다. 이래서 실력은 있는데 시험 운이 없어서.. 라는 말도 하게 된다. 나오는 결과에 핑곗거리로 삼는 예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논외로 하고 말이다. 그러나 정말 근거 없는 징크스를 떠올리며 그 일반화된 개념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예를 들면 소강절선생이 창시했다고 여겨지는 매화역수(梅花易數)만 봐도 길흉의 숫자는 각각 다르다. 즉 매화역수에서는 운을 따질 때 각자의 생년월일을 환산하여 하나의 자기 기본 숫자를 추출한다. 그런 다음 연월을 대입하여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대입하여 기본 숫자와의 합산으로 도출하여 나온 숫자를 괄로 삼아 운기의 흥과 길을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그해의 전체 운은 물론 달마다의 운기는 물론 시험일 당일의 일진까지도, 더 나아가 시간대의 운기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펼쳐가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4가 행운의 숫자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2가 길한 숫자가 된다. 어떤 이에게는 4자나 2자가 흉수가 되기도 한다. 우리의 정서에 나쁜 숫자 불길한 숫자로 인식된 숫자 4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흉수가 아니란 얘기다. 그러나 집단 무의식은 사회적으로도 위력을 발휘하니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4층을 빼놓고 3층 다음에 5층이 되며 집 호수에도 4호는 없고 3호에서 바로 5호로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예전에 필자가 편찬한 ‘행운을 부르는 특급비결’이라는 가볍게 읽을만한 저작이 있다. 여기에서도 숫자에 길흉이 담겼다는 의미로 한 챕터를 할애한 바 있다. 각자 행운이라고 판단된 숫자는 분명 생활의 재미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4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4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판

스도쿠3650

컬러스도쿠110

주사스도쿠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6	9	1	2	8	7	9
2	1	8	9	7	2	9	6	8
9	7	9	6	8	8	1	2	2
1	6	8	8	7	2	9	9	
7	2	9	2	8	9	6	8	1
9	8	2	1	6	9	2	8	7
8	9	7	8	2	6	9	1	2
1	8	1	2	9	8	7	9	6
6	9	2	7	9	1	8	2	8

2	9	8	7	9	1	2	8	6
2	7	6	8	2	9	9	8	1
1	8	9	6	8	2	9	7	1
8	1	7	9	2	6	1	9	8
6	1	9	8	7	6	1	9	2
9	2	8	9	1	2	7	6	8
9	2	2	8	8	6	1	7	
8	9	1	2	9	8	7	9	
7	8	1	2	6	9	8	2	9